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 중 순

국문요약

대학교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대학교에서 받은 공직윤리 교육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대학교 행정학과 의 공직윤리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교육 직후, 교육 종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지수의 평균값이 42.84에서 43.18로 어느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의무론적 가치관(deontology)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윤리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행정학과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성, 개인의 의무, 도덕성, 약속한 것을 지키기 등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가치관을 대학 교육 이전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배양하도록 도울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직윤리, 윤리, 도덕, 대학교, 교육

I. 문제의 제기

공무원은 공공영역을 다루며 업무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공무원의 업무는 이들의 윤리적 결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공직윤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인 52.3%, 일반국민 40.9%, 전문가 39.2%, 외국인 29.6%, 공무원 7.7%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005)

1) 다만, 2018년도의 조사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여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양소영·김남숙, 2020).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공직윤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이 강조되고 있다.²⁾ 또한 많은 대학교의 행정학과에는 공직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직윤리 과목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공직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보다 강화된 공직윤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25분 면접 중 일부 공직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던 5급 공무원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40분간의 공직가치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9급 국가직 면접에서도 5분 스피치의 주제로 공직가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공직윤리가 강조되는 것은 현재 젊은 세대가 공직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공직을 선택한 이유로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성인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7%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뽑았으며, 응답자의 95.5%가 그 이유로 “안정적일 것 같아서”를 선택하였다(안전저널, 2018.12.7). 하지만 이러한 공직 선호 현상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장년 층에서도 드러난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8.8%의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를 들었다(아시아투데이, 2018.1.25).³⁾ 즉 젊은 세대 스스로, 그리고 그 부모세대 또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직업 안정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직에 진입한 젊은 세대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⁴⁾

타났다.

2) 공직윤리에 관한 강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OECD는 공공부문 이익충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행동기준 정립 및 청렴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전직 공무원의 로비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와 재산신고 및 공개를 전담하는 정부윤리청(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신설하였다. 이후 정부윤리법의 연장선에서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을 제정하여 회전문 인사(revolving-door)와 선물 및 여행, 사례금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OECD, 2003; 김광암, 2001; 이성기, 2012). 캐나다의 경우,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에 관한 강령(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에 관한 정책(Policy on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Employment)을 통해 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회피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객관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소속의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가 공직윤리 업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허찬무, 2016). 또한 영국은 공무원행동관리지침(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충돌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행위지침을 규정하고 있다(박경철, 2015).

3) 두 사례 모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이다.

4) 또한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육의 한계와 이에 따른 위기로 교육계에서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

대학교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대학교에서 받은 공직윤리 교육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교육 직후, 교육 종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 공직윤리 교육이 갖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재 대학교 행정학과의 학생들은 어떤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가? 둘째,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대학생의 윤리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두 번째 연구 질문과 함께, 공직윤리 교육이 갖는 효과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공직윤리 교육 이외에 어떤 요인이 대학생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지막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공직윤리 교육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대학생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가? 즉 대학생의 윤리의식은 대학 입학 이전 사회화 과정에서 얻은 가치관의 어떤 영향을 받는가?

II.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교육현황

이 장에서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 2020년까지 3개년의 공직윤리 관련 과목의 개설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과과정 정보를 통해 수집하였다.⁵⁾ 2016년에는 54개 대학에서 총 60개의 공직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4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는 47%, 3학년 25%, 2학년 17%, 1학년 7%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교적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보다는 지방의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과목이 보다 활발히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인호 외(2011)가 조사한 2011년의 44개 대학보다 증가된 수치이다. 2018년에는 66개 대학에서 총 69개의 공직 윤리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4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는 26%, 3학년 13%, 2학년 17%, 1학년 2%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9개 대학에서 총 91개의 공직 윤리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4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는 37%, 3학년 22%, 2학년 12%, 1학년 4%로 나타났다.

행정학과에 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는 2016년에는 54개 대학, 2018년 66개 대학, 2020년 79개 대학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교의 윤리관련 과목도 60개에서 2018년 69개, 2020년에는 91개로 4년 사이 5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학과 교과과정에서 공직윤리가 필수과목인 경우가 드물고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철학 및 윤리교육에 초점을

하고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실제로는 이외에도 관료제, 조직관리, 행정통제 등의 과목들에서도 공직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부패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자의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학과의 교과과정에서도 공직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직윤리 교육의 체계적인 설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의 <표 1>, <표 2>, <표 3>은 2016, 2018, 2020년 3개년에 개설된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현황을 보여준다.

〈표 1〉 2016년도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 현황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가야대학교	경찰윤리학	4	대구대학교	경찰윤리론	4
강남대학교	인성과 학문 I, II	1	동국대학교	공직윤리	3
	인성과 학문 III, IV	2	동신대학교	안전과 윤리	4
	행정윤리론	2	동의대학교	행정철학	4
건국대학교	행정철학	2	목원대학교	행정철학	4
건양대학교	군경찰윤리	1	목포대학교	행정철학	3
경기대학교	행정윤리 및 철학	4	백석대학교	공직윤리론	
경남대학교	행정책임론	4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윤리	3
경동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서경대학교	행정책임론	
경상대학교	정부윤리론	3	서남대학교	경찰윤리학	4
경성대학교	행정윤리와 철학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철학	4
고려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	3	서울디지털대학교	행정과 윤리	2
광주대학교	행정철학	4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2
남부대학교	경찰윤리론	4	서울여자대학교	공직윤리	4
단국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세명대학교	경찰윤리	3
명지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	4	전북대학교	행정철학	2
세종대학교	행정철학	3	전주대학교	행정철학	4
세한대학교	경찰윤리	1	제주국제대학교	경찰윤리	1
수원대학교	행정과 사회사상	3	중원대학교	경찰윤리와 철학	3
	행정철학	4	창원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	4
숙명여자대학교	행정철학	2	청주대학	행정철학	4
순천향대학교	경찰윤리론	2	충남대학교	행정윤리	3
송실대학교	행정윤리	4		행정철학	4
신경대학교	경찰윤리론	3	평택대학교	행정철학	4
신라대학교	보건윤리	2	한경대학교	행정철학	4
아주대학교	행정윤리	4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철학	3
영남대학교	행정윤리	4		공직부패와 윤리	4
용인대학교	경찰윤리론	4	한밭대학교	행정윤리	
우석대학교	행정책임론	3	한성대학교	행정윤리	4
	공직윤리와 행정문화	4	한중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4
인하대학교	행정철학	2			

6) 모든 강의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일부 공직윤리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살펴본 후의 추론이다.

〈표 2〉 2018년도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 현황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가야대학교	경찰윤리학	4	순천향대학교	경찰윤리론	2
강릉원주대학교	행정책임과 윤리	3	송실대학교	행정윤리	4
강원대학교(삼척)	행정철학		신경대학교	경찰윤리론	2
강원대학교	행정철학	3	신라대학교	보건윤리	2
경기대학교(모든 캠퍼스)	행정윤리 및 철학	4	안동대학교	행정윤리와 철학	3
경기대학교	경찰윤리	4	영남대학교	행정윤리	4
경남대학교	행정책임론	4	용인대학교	경찰윤리론	3
경동대학교(경기도 양주, 설악)	행정철학과 윤리	3	우석대학교	행정책임론	3
경상대학교	정부윤리론	3	공직윤리와 행정문화	4학년	4
경성대학교	행정윤리와 철학	3	울산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2
계명대학교	경찰윤리학	4	원광대학교	경찰윤리	2
고려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영어)			위덕대학교	4
김천대학교	공직윤리론	1	이화여자대학교	행정철학과 공직윤리	4
나사렛대학교	경찰윤리론	4	인천대학교	행정철학	3
남부대학교	경찰윤리론	4	인하대학교	행정철학	2
단국대학교(천안)	의료윤리학	2	전남대학교	행정철학	4
대구대학교	경찰윤리론	4	전북대학교	행정철학	3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서비스 윤리와 철학	4	전주대학교	공직윤리론	4
대구한의대학교	경찰윤리론	3	제주국제대학교	공직자유리	1
대전대학교	행정윤리와 사례연구	4	중부대학교	경찰윤리	3
동신대학교	안전과 윤리	4	중원대학교	경찰윤리와 철학	3
동양대학교	경찰행정철학	4	창신대학교	경찰윤리론	4
동양대학교(북서울)	공공철학과 윤리	2	창원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	4
동의대학교	경찰윤리학	4	청주대학교	행정철학	4
목포대학교	안전과 윤리	4	초당대학교	경찰윤리론	4
배재대학교	행정윤리론	3	충남대학교	행정철학	3
부산디지털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충북대학교	행정철학	3
서울여자대학교	보건윤리	3	한경대학교	행정철학	4
선문대학교	공직윤리	4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철학	3
성결대학교	행정책임과 윤리	4		공직부패와 윤리	4
성균관대학교	행정철학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통제와 윤리	2
세종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한려대학교	경찰윤리학	3
세한대학교	경찰윤리론	2	한중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4
숙명여자대학교	행정철학	2			

〈표 3〉 2020년도 대학교 행정학과와 공직윤리 과목 개설 현황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학교명	과목명	수강 학년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관료와 윤리	3	세명대학교	경찰윤리	2
가톨릭대학교	행정윤리와철학		세종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강릉원주대학교	행정윤리와 공공감사		세한대학교	공직윤리론	3
강원대학교(삼척)	행정철학		숙명여자대학교	행정철학	
강원대학교	행정철학	3	순천대학교	공직윤리	4
건국대학교	행정철학	2	순천향대학교	경찰윤리론	2
건양대학교	군경철학	1	송실대학교	행정윤리	4
경기대학교	행정윤리및철학	4	신경대학교	경찰윤리론	2
	경찰윤리	4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 I	1
경남대학교	행정책임론	4		공공인재학 II	1
경동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3	신한대학교	행정윤리론	4
경상대학교	정부윤리론	3	아주대학교	행정윤리	
경성대학교	행정윤리와 철학	3	영남대학교	행정윤리	4
경찰대학교	공직윤리		우석대학교	행정책임론	3
계명대학교	경찰윤리학	4		공직윤리와 행정문화	4
고려대학교	공공철학과윤리	3	울산대학교	행정철학과윤리	
광주대학교	경찰윤리론		원광대학교	경찰윤리	2
김천대학교	경찰윤리		위덕대학교	경찰윤리봉사론	
나사렛대학교	경찰윤리론	4	이화여자대학교	행정철학과공직윤리	
남부대학교	경찰윤리론	4	인천대학교	행정철학	3
단국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	2	인하대학교	행정철학	
대구대학교	행정통제와철학	2	전남대학교	행정철학	4
	경찰윤리론	4	전북대학교	행정철학	3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철학	3	전주대학교	공직윤리론	4
대구사이버대학교	공직자의 윤리의식	1	제주대학교	행정철학	
	사회서비스윤리와 철학	4	제주국제대학교	공직자윤리	
대구학의대학교	경찰윤리론	3	중부대학교	경찰윤리	
대전대학교	행정윤리와 사례연구	4	중앙대학교	공직윤리론	4
동신대학교	안전과 윤리	4	중원대학교	경찰윤리와철학	3
동양대학교	공공철학과정의	4	창신대학교	경찰윤리론	
	공직가치와 공직사회	3	창원대학교	공공철학과윤리	4
동의대학교	경찰윤리학	4	청주대학교	행정철학	4
	안전과 윤리	4	초당대학교	경찰윤리학	4
명지대학교	행정철학	4	충남대학교	행정윤리	3
	공공철학과윤리	4		행정철학	3
목포대학교	행정철학		충북대학교	행정철학	3
	행정윤리와 가치		한경대학교	행정철학과 윤리세미나	
배재대학교	공직윤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가치와 윤리	3
	행정철학			생태주의 행정철학	3
백석대학교	공직윤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통제와 윤리	2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윤리		한남대학교	행정윤리와 사상	4
상지대학교	공직윤리론	2	한려대학교	경찰윤리학	3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철학과윤리	2	한밭대학교	행정윤리	
서울여자대학교	공직윤리와 공공감사	4	한성대학교	행정윤리	2
서원대학교	경찰윤리	4	홍익대학교	법조윤리	4
성결대학교	행정철학	4			

Ⅲ. 이론적 배경

1. 윤리와 윤리적 민감성의 정의

공직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인들을 찾아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즉 국민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공직자는 반드시 공직윤리를 가져야 한다. 윤리(ethics)는 “행동해야 하는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원칙”을 의미한다(Cohen et al., 2001). 윤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도덕(moral)이다. 일반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윤리는 ‘인간 사회의 규범’을, 도덕은 ‘규범을 준수하는 개인의 심성’을 뜻하며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김태길, 1995; 신은정·이주희, 2019). 즉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도덕보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덕적 판단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이다(김진영 외, 2020). 구체적으로는 윤리적 갈등에 직면할 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박균열, 2019).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와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서 도덕적 추론 능력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을 높여야 한다(김상돈, 2019). 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많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윤리적 민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Wittmer, 2000).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존재하는지 알아차리고,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경중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Rest, 1983; Rabouin, 1996; Ersoy & Gündoğmus, 2003). 이와 함께, Clarkeburn(2002)은 윤리적 민감성이 윤리적 상황과 관련된 주변 상황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주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Weaver, Morse & Micham(2008)은 전문적 관계 속에 상호성, 책임성, 용기의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해야만 윤리적 민감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적 민감성은 고객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문적 만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지혜이다(Weaver, Morse & Micham, 2008).

2. 윤리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교육(education)은 개인, 개인이 속한 집단, 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⁷⁾ 교육의 내용은 그 시대에 가장 지향하는 인간상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

7) 한 개인의 사소한 습관부터, 사회에서의 생활 방식, 규칙, 인간상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인간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하게 된다(송선영·신원동, 2019). 이러한 교육과 실제 효과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의 결과가 평가되어야 한다(홍길표 외, 2004; 하미승 외, 2004; 윤기찬, 2004).⁸⁾ 행정학 분야와는 달리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윤리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legitimacy crisis)이 이미 던져지고 있다. 윤리성을 중시하는 의사(Self & Baldwin, 1994), 치과의사(Bebeau, Rest & Wammor, 1985), 상담가(Breadmeier, Land & Shields, 1994; Bore, 2003), 간호사(Duckett & Ryden, 1994; Leino-Kilpi et al., 2003) 등 여러 분야에서 윤리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경영윤리(business ethics)의 효과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Tang & Chen, 2008; Ge & Thomas, 2008; Husted & Allen, 2008; Kurpis et al., 2008).⁹⁾ 경영학 분야에서는 주로 경영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의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ohr, 1990; Whipple & Swords, 1992; White & Rhodeback, 1992; Grims, 2004). Rynes et al.(2003), Feiner(2004), Giacalone(2004) 등의 연구는 대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이 취업 후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Evans et al.(2006)은 미국의 일부 경영대학원의 윤리교육이 여타 대학교의 윤리교육보다 효과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한다(Chen & Tang, 2006). 그리고 대학교의 경영교육 커리큘럼에서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Hosmer, 1988; Kullberg, 1988; Robertson & Fadil, 1999).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영학과 사회학 커리큘럼이 대학생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태도에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Wynd & Mager, 1989).

경영학과 함께, 여타 학문 분야에서도 윤리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윤리적 민감성이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Lowenberg & Dolgoff, 1996; Bore, 2003; Weaver, 2007). Peffer & Fong(2002), Trank & Rynes(2003), Merritt(2004)은 윤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해석에 대한 기준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heeran(1993)은 미래에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관련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대학교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시(예를 들어, 교육 기간, 시기, 강도, 주제, 방식 등)되어야 대학생들의 윤리의식과 대학생들의 윤리적인 믿음,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Ponemon(1992)은 대학생이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윤리적 딜레마를 미리 경험해 보는 선택-사회화 과정(selection-socialization processes)인 구조화된 경험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윤리 의식을 높

8) 하지만 Beanmont(1979)는 유사한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태에서 교육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9) McGabe, Ingram & Dato-On(2006)에 의하면, 약 40%의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부정행위에 가담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1960년대와 비교하여 30-35% 더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 McGabe, Ingram & Dato-On(2006)은 부정행위를 실시한 학생들이 향후 사회로 진출하여 조직구성원이 되었을 때 뇌물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Pitt & Abratt(1986)는 민간기업에서의 부패와 관련된 15가지의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으며, Jones(1990)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와 관련된 10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DeConinck & Good(1989)는 영업과 관련된 윤리적인 믿음에 관해서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수 있다는 것이다. Langenderfer & Rockness(1989)은 윤리교육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상황과 관련된 규범,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가치를 정의하며, 대안적 선택을 식별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iacalone et al.(2003), Jurkiewicz et al.(2004)은 윤리교육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Kercheval(2004), Merritt(2004)는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범죄자와의 인터뷰 등 체험 학습을 활용할 때, 윤리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직에 진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Bowman et al.,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송병주·정원식(2000), 김주환(2001), 박치성(2008)의 연구가 공직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일부분 주장하고 있으며, 강인호 외(2011)의 연구가 국내 대학의 행정윤리 과목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과거에 윤리는 과학적/학문적 주제가 아닌 종교적/논쟁적인 주제로 간주되었다(Vardi & Wiener, 1996; Vardi & Weitz, 2004). 또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윤리가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였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윤리의식이 교육의 결과인지, 아니면 타고난 덕목의 결과인지에 관한 질문과 관계가 있다. 즉 윤리교육은 필연적으로 대학생의 내면에 이미 자리 잡은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자신의 어릴 적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체득한다고 주장한다(Staw et al., 1986; Mintzberg & Gosling, 2002). 개인이 아동기에 습득한 심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윤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ommer et al., 1987; Stead et al., 1990; Gibbs, 1991; Terpstra et al., 1993; Bendixen et al., 1998; Roxas & Stoneback, 2004). 대학생들은 이미 윤리에 관한 각자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사회화도 진행된 상태이다(김우진, 2020). 따라서 윤리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에 관한 분석이 동시에 요구된다.

윤리교육과 함께, 성별, 연령, 종교, 가정환경, 지역환경 등 여러 요인이 윤리교육의 효과성에 영

10) 교육과정에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 상황의 윤리적 딜레마를 구조화된 간접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지혜·문용린(2012)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역량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 전수 위주의 지식 교육이 아닌, 도덕적 행위의 실천 전략을 담은 실행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명민(2019)도 대학윤리교육에서 초반부에는 윤리학과 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윤리적 결정에 대한 방법을 학습한 뒤 다양한 윤리적 주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은정 외(2019)도 대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은 직업훈련 및 업무경험 등 실질적인 체험 활동과 같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을 준다고 주장된다(Allmon et al., 2000; Siu et al., 2000; Sinhapakdi et al., 2001; Vitell, 2003; Roxas & Stoneback, 2004; Albaum & Peteron, 2006; Swaidan et al., 2008; Crittenden et al., 2009).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분석결과는 38건의 연구에서 10건 정도 나타났는데(Craft, 2013), 남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Hopkins et al., 2008), 보다 엄격한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는 반면(Marques & Azevedo-Pereira, 2009),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이 경쟁자를 속이려는 경향이 높아 여성보다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되기도 한다(Herington & Weaven, 2008).

IV. 연구설계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윤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할 부분은 설문 응답자의 윤리의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윤리의식의 수준을 측정이 가능한 척도(proxy)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학기에 명지대학교 “공공철학과 윤리” 수업과 고려대학교 “행정과 리더십” 수업 수강학생 등 총 65명을 대상으로 사전응답과 사후응답과의 차이점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단답식의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사전과 사후 간의 차이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Ethics Risk Index, Executive Branch Employee Ethics Survey, Moral Judgement Interview 등의 지표에서 제시되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즉 도덕이나 윤리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답식의 설문 문항보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사건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문항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윤리의 중요성, 공직윤리과목의 필요성, 공직윤리교육의 목표에 관한 인식변화를 측정하는 단답식의 설문문항¹¹⁾과 동시에 1972년 Rest가 개발한 DIT(Defining Issues Test)를 문용린(2011)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한 도덕판단력검사(KDIT)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DIT검사는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Kurtines & Gewirtz, 2004). DIT에서 사용되는 객관식 선다형 측정은 피검자에게 도덕적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된 답안들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필검사이다. KDIT에서는 ‘환자의 애원’, ‘탈옥수’, ‘남편의 고민’이라는 세 개의 선택 상황이 제시된 후, 각각의 사례에서 응답자가 내리는 결정과 관련된 12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응답자는 이들 12개 관련 질문의 중요성을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골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한다. 이렇게 선택된 4개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P(principled) 지수가 산출된다. P지수는 Kohlberg의 학습단계에서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인습후기 수준의 항목들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나타낸다.¹²⁾ 즉 P점수가 높다는 것은 피험자가 순위 인습 이후의 문항을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단답식의 설문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인재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공직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작 직후와 강의 종강 바로 전에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직윤리과목이 개설되어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대학교 가운데 실제로는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선을 통한 문의를 거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실제로 강의가 실시된 명지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경상대, 이화여대, 숭실대, 고려대, 세종대 등 8개 대학 3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 14명을 대상으로 공직 진입 후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³⁾

이 연구에서는 윤리교육 이외에 윤리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Swaidan et al.(2008), Crittenden et al.(2009)이 제시한 유전적 요인(성별)과 대학교육 이전의 사회화 과정에서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종교, 연령)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Reidenbach & Robin(1988; 1990)이 경영윤리(business ethics)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시켰던 윤리적 사상인 이기주의, 상대주의, 공리주의, 의무론, 정의론 등 다차원 윤리지표를 반영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Zgheib(2005), Kujala & Pietiläinen(2007)의 측정 문항을 일부 적용하여 공리주의적 가치관과 의무론적 가치관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표 4〉 설문조사 문항 설계

구분	문항
KDIT 사례1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게 했다. 너무나 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여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게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KDIT 사례2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

12)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도덕적 사고가 자아중심적이며 외부의 규칙에 의해 옳고 그른 행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인습이전 단계이다. 2단계는 도덕적 사고가 자아중심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이동하여 가족이나 집단의 기대가 유지되고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충성과 순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로 인습단계이다. 3단계는 도덕적 사고가 사회적 관점에서 시공을 초월한 관점으로 이동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윤리원칙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계로 인습이후 단계이다(Kohlberg, 1958; Rest, 1979; 이미애, 2013).

13) 공직 진입 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년차 연구가 종료되기 한달 전인 2019년 6월에 그동안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총 35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직에 진출한 14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KDIT 사례3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 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애원했지만,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고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공리주의적 가치관	매사 효율적인 것이 중요하다. 행동의 의도보다 행동의 결과가 좋은 것이 중요하다. 매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최대 이익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의무론적 가치관	매사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문서로써 공식화된 약속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종교 성향	귀하는 평소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귀하는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출처: 문용린(2011); Zgheib(2005), Kujala & Pietiläinen(2007) 재구성.

358부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응답 결과 344부(교육이전과 교육직후 설문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우선, 성별 비율은 여학생이 약간 더 많았으나 대체로 비슷하였고 3, 4학년이 약 80%로 수강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수강생의 연령은 22세부터 25세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신의 장래 진로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68%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5> 조사대상의 개요

		빈도(%)		
		1차	2차	총계
학교	명지대	71 (23.3%)	71 (22.8%)	142 (23.0%)
	서울시립대	47 (13.2%)	43 (13.8%)	90 (13.5%)
	아주대	15 (4.2%)	15 (4.8%)	30 (4.5%)
	경상대	69 (19.4%)	60 (19.3%)	129 (19.3%)
	이화여대	15 (4.2%)	14 (4.5%)	29 (4.3%)
	송실대	26 (7.3%)	24 (7.7%)	50 (7.5%)
	고려대	50 (14.0%)	44 (14.1%)	94 (14.1%)
	세종대	51 (14.3%)	40 (12.9%)	91 (13.6%)
	전체	344 (100%)	311 (100%)	655 (100%)
성별	남	154 (44.6%)	127 (41.9%)	281 (43.4%)
	여	189 (55.1%)	176 (58.1%)	365 (56.5%)
	전체	344 (100%)	303 (100%)	647 (100%)
학년	1학년	4 (1.2%)	2 (0.7%)	6 (0.9%)

	2학년	55 (16.0%)	56 (18.4%)	111 (17.1%)
	3학년	124 (36.0%)	106 (34.9%)	230 (35.5%)
	4학년	159 (46.2%)	140 (46.1%)	299 (46.1%)
	전체	344 (100%)	304 (100%)	648 (100%)
연령	20-21	46 (12.9%)	43 (13.8%)	89 (13.3%)
	22-23	106 (29.8%)	96 (30.9%)	202 (30.3%)
	24-25	120 (33.7%)	101 (32.5%)	221 (33.1%)
	26-27	54 (15.2%)	45 (14.5%)	99 (14.8%)
	28-29	11 (3.1%)	10 (3.2%)	21 (3.1%)
	30세 이상	3 (0.8%)	2 (0.6%)	5 (0.7%)
	전체	341 (100%)	298 (100%)	639 (100%)
공직 희망 여부	예	241 (67.7%)	211 (67.8%)	452 (67.8%)
	아니오	103 (28.9%)	90 (28.9%)	193 (28.9%)

V. 연구결과

1. 행정학과 대학생의 윤리 수준

먼저 이 연구에서는 공직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학과 대학생의 윤리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윤리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지수를 활용하였다. DIT는 도덕판단력의 발달 정도를 수치화한 여러 가지 지수(index)를 제공하는데, 그중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온 지표가 바로 P지수이다. 피험자가 평정한 총 문항 중에서 인습 이후 문항을 선택한 비율, 혹은 피험자가 인습 이후 도식을 활용한 정도를 의미하는 P지수는 피험자의 도덕판단력 발달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이인재 외, 2011). 실제로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P지수를 피험자의 도덕판단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문용린, 2011). 최초의 P지수(raw score)는 0부터 95까지 범위를 가지는데, 이는 다시 퍼센트로 환산된다(문용린, 2011; Rest, 1986).

공직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의 P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P지수는 각각 42.90, 43.58로 여학생의 윤리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표본 t-test의 결과, t값이 -0.394로 성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면, 2학년의 P지수가 46.31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이 41.18로 가장 낮은 P지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공무원 희망 여부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희망자의 P지수가 43.30, 비희망자의 P지수가 43.75로 오히려 비희망자의 P지수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독립표본 t-test의 결과, t값이 -0.249로 공무원 희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종교, 공리주의적 가치관, 연령은 모두 P지수와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하지만 의무론적 가치관과 P지수 간에는 유의수준 0.1 하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론적 가치관을 가질

수록 P지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의 P지수는 42.84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던 일반대학생 45.99, 의과대학생 46.80, 한국인 표준 집단 44.97보다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김윤정, 2008). 하지만 이는 학생 개인의 인지적 변인과 성장과정,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단면적인 결과이므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표 6〉 참조).

〈표 6〉 대학생의 윤리 수준

평균(표준편차)

구분		P지수
성별	남성	42.90 (15.959)
	여성	43.58 (15.849)
	t값	-0.394
학년	1학년	45.83 (11.980)
	2학년	46.31 (14.698)
	3학년	41.18 (15.308)
	4학년	43.77 (16.739)
	F값	1.486
공무원 희망 여부	예	43.30 (15.663)
	아니오	43.75 (15.909)
	t값	-0.249
종교	상관계수	0.006
공리주의적 가치관	상관계수	-0.055
의무론적 가치관	상관계수	0.102*
연령	상관계수	-0.023
전체		42.84 (16.610)

* $p < 0.10$, ** $p < 0.05$, *** $p < 0.01$

2. 공직윤리 교육 이전과 이후의 윤리의식 변화

우선, 응답자들의 윤리 및 공직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교육 전과 후의 응답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리의 중요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윤리의 중요성, 행정학 과정에서 윤리의 중요성, 개인생활에서 윤리의 중요성, 학교생활에서 윤리의 중요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윤리였으며(교육 이전 6.45, 교육 이후 6.30) 다음으로 행정학 교육 과정의 윤리(교육 이전 6.00, 교육 이후 6.00), 개인생활의 윤리(교육 이전 5.44, 교육 이후 5.53),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의 윤리(교육 이전 5.39, 교육 이후 5.47)로 나타났다. 4개 항목 모두 7점 척도 상에서 4점('보통이다')을 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윤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 참조). 윤리의 중요성은 영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개인 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윤리보다, 공공부문이나 행정학 교육부문에서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아닌, 제3자가 활

동하거나 보다 추상적인 미래의 상황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직윤리 교육 이후, 윤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공공부문에서 윤리의 중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6.45에서 6.30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과정에서 윤리의 중요성의 경우, 평균값(6.00)의 변화가 없었으며, 개인생활에서 윤리의 중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5.44에서 5.53으로 공직윤리 교육 이후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윤리의 중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5.39에서 5.47로 공직윤리 교육 이후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의 경우, 5.82에서 5.83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직윤리 교육 이후에 응답자의 윤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윤리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윤리의식 변화

		평균(표준편차)		
	문항	교육 이전	교육 이후	t값
1	공공부문에서 윤리의 중요성	6.45 (0.740)	6.30 (0.891)	2.243**
2	행정학 교육과정에서 윤리의 중요성	6.00 (0.963)	6.00 (0.927)	-0.082
3	개인생활(가족, 친구 관계, 물건 구입 등)에서 윤리의 중요성	5.44 (1.128)	5.53 (1.109)	-1.064
4	학교생활(시험, 과제, 취업 준비 등)에서 윤리의 중요성	5.39 (1.212)	5.47 (1.127)	-0.914
	평균값	5.82 (0.726)	5.83 (0.787)	-0.162

* $p < 0.10$,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공직윤리 교육의 필요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학부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 행정학과 과정에서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 행정학과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필수수강 필요성,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윤리 과목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행정학과 과정에서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의 필요성(교육 이전 6.97, 교육 이후 6.09)이었으며, 다음으로 학부 과정에서의 개설 필요성(교육 이전 5.70, 교육 이후 5.89), 행정학과 필수수강 필요성(교육 이전 5.34, 교육 이후 5.65),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성(교육 이전 5.48, 교육 이후 5.59)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 수준(4점) 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공직윤리 과목이 행정학과에 개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행정학과에서 공직윤리 수업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장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표 8〉 참조).

공직윤리 교육 이후, 공직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행정학과 과정에서의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6.97에서 6.09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5.70에서 5.89로 높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p < .05$)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행정학과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필수수강 필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5.34에서 5.65로 공직윤리 교육 이후 높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p < .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성의 경우, 평균값이 5.48에

서 5.59로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의 경우, 5.63에서 5.81로 높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p < .05$)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공직윤리 교육 이후에 학부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 행정학과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필수수강 필요성 등 일부 공직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공직윤리과목의 필요성 인식

문항		교육 이전	교육 이후	평균(표준편차)
1	대학 학부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	5.70 (1.234)	5.89 (1.091)	-2.080**
2	행정학과 과정에서 공직윤리 과목 개설 필요성	6.97 (1.057)	6.09 (0.988)	-1.525
3	행정학과 과정에서 공직윤리 필수수강 필요성	5.34 (1.445)	5.65 (1.353)	-2.904***
4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윤리 과목 필요성	5.48 (1.246)	5.59 (1.174)	-1.113
	평균값	5.63 (0.963)	5.81 (0.927)	-2.444**

* $p < 0.10$, ** $p < 0.05$, *** $p < 0.01$

공직윤리 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은 행정학 교육과 도덕문제의 연결, 행정문제의 윤리적 의미 인식, 도덕적 의무감 개발, 윤리적 갈등 처리능력 개발, 행정업무의 불확실성 처리방법 학습, 윤리적 행동 촉진,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이해 등 7개 세부 목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표 9〉 참조). 이 가운데 공직윤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된 것은 행정문제의 윤리적 의미 인식(교육 이전 5.91, 교육 이후 5.8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윤리적 행동 촉진(교육 이전 5.86, 교육 이후 5.72), 도덕적 의무감 개발(교육 이전 5.82, 교육 이후 5.74), 윤리적 갈등 처리능력의 개발(교육 이전 5.68, 교육 이후 5.70), 행정업무의 불확실성 처리방법 학습(교육 이전 5.59, 교육 이후 5.57),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이해(교육 이전 5.27, 교육 이후 5.22), 마지막으로 행정학 교육과 도덕문제의 연결(교육 이전 4.75, 교육 이후 5.05)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 수준(4점) 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행정문제의 윤리적 의미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공직윤리 교육은 행정문제의 윤리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고 도덕적 의무감 및 책임감의 개발하는 등 윤리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공직윤리 교육 이후, 행정문제의 윤리적 의미 인식, 도덕적 의무감 개발, 윤리적 행동 촉진, 행정업무의 불확실성 처리방법 학습,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이해의 경우, 평균값이 오히려 낮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갈등 처리능력의 개발의 경우, 평균값이 5.68에서 5.70으로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평균값이 낮았던 행정학 교육과 도덕문제의 연결의 경우, 평균값이 4.75에서 5.05로 공직윤리 교육 이후 높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p < .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의 경우, 평균값(5.55)의 변화가 없었다. 즉 공직윤리 교육 이후에 공직윤리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학 교육과 도덕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공직윤리 교육의 목표 인식

평균(표준편차)

문항	교육 이전	교육 이후	t값
1 윤리적인 갈등과 딜레마의 처리 능력 개발	5.68 (0.962)	5.70 (0.999)	-0.182
2 행정 문제들의 윤리적 의미 인식	5.91 (0.798)	5.87 (0.908)	0.555
3 도덕적인 의무감 및 책임감 개발	5.82 (1.006)	5.74 (1.059)	0.806
4 윤리적 행동의 촉진	5.86 (0.942)	5.72 (1.093)	1.383
5 행정학 교육과 도덕 문제의 연결	4.75 (1.281)	5.05 (1.251)	-2.575***
6 행정 업무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학습	5.59 (1.085)	5.57 (1.113)	0.173
7 공직윤리의 역사, 구성, 일반적 윤리와의 관계 이해	5.27 (1.141)	5.22 (1.207)	0.453
평균값	5.55 (0.635)	5.55 (0.761)	0.053

* $p < 0.10$,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행정학과 학생의 윤리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기 위해 KDIT를 활용한 P지수의 교육 이전과 교육 이후 변화를 살펴보았다. t-test 결과, t값이 -0.2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지수의 평균값은 42.84에서 43.18로 실제로 0.34 증가하였다. 즉,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균값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10〉 참조).

〈표 10〉 공직윤리 교육이 행정학과 학생의 윤리의식에 주는 영향

평균(표준편차)

구분	교육 이전	교육 이후	t값
P지수	42.84 (16.61)	43.18 (16.33)	-0.273

* $p < 0.10$,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이 교육이수자인 대학생이 공직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효과성을 갖는지 학습의 전이효과에 관해 분석하였다.¹⁴⁾ P지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이 나타났는데, t-test 결과, t값이 0.2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점수의 평균값은 43.18에서 42.14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저조한 응답율과 적은 수의 공직 진출자 등 실제로 공직 진출자의 응답을 얻기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의 표본은 14개에 불과하여 결과를 통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공직윤리 교육이 공직 진입자의 윤리의식에 주는 영향

평균(표준편차)

구분	교육 이후	공직 진입 후	t값
P지수	43.18 (16.33)	42.14 (14.239)	0.234

* $p < 0.10$, ** $p < 0.05$, *** $p < 0.01$

14) 교육의 전이효과는 교육으로 인해 실제 직무수행에서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공무원 희망 여부, 종교, 공리주의적 가치관, 의무론적 가치관 등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교육 이전과 이후 P지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표 12〉 참조). 분석 결과, 의무론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 이후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은 P지수가 42.9에서 42.05로 낮아졌으나, 여성은 43.58에서 44.60으로 교육 이후 P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 2, 4학년의 경우, 교육 이후 P지수가 오히려 낮아졌고, 3학년의 경우, P지수가 높아졌으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P지수가 43.30에서 43.62로 높아졌으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 43.75에서 43.40으로 낮아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응답자의 경우, P지수가 5.67에서 5.65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P지수(5.14)의 변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의무론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P지수가 5.66에서 5.76으로 높아졌으며, t값이 통계적으로($p < .05$)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체로 개인적 특성은 윤리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의무론적 가치관이 강한 경우에는 공직윤리 교육을 통해서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윤리의식의 변화

평균(표준편차)

구분		P지수		
		교육 이전	교육 이후	t값
성별	남성	42.9 (15.959)	42.05 (15.150)	0.455
	여성	43.58 (15.849)	44.60 (16.233)	-0.609
학년	1학년	45.83 (11.980)	41.67 (11.787)	0.403
	2학년	46.31 (14.698)	45.77 (17.263)	0.176
	3학년	41.18 (15.308)	43.58 (16.503)	-1.144
	4학년	43.77 (16.739)	42.93 (15.152)	0.456
공무원 희망 여부	예	43.30 (15.663)	43.62 (15.525)	-0.222
	아니오	43.75 (15.909)	43.40 (16.860)	0.148
종교적인 응답자(N=39)		5.67 (0.642)	5.65 (0.634)	0.126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N=237)		5.14 (0.648)	5.14 (0.647)	0.047
의무론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N=119)		5.66 (0.651)	5.76 (0.665)	-1.852**

* $p < 0.10$, ** $p < 0.05$, *** $p < 0.01$

참고: 종교적인 응답자, 공리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 의무론적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7점 척도에서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VI. 결론

현재 공직에 진출하게 된 대학생에 대한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공직윤리 교육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교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이 효과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행정학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이 대학생이 보다 향상된 윤리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이 취업 후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Rynes et al.(2003), Feiner(2004), Giacalone(2004), Evans et al.(2006) 등의 경영학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론교육에 중점을 둔 강의 방식에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공직윤리 강의 가운데 일부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론교육과 함께 사례발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강의 시간은 이론교육을 위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⁵⁾ 이를 보면, 현재의 공직윤리 강의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onemon(1992), Giacalone et al.(2003), Jurkiewicz et al.(2004), Kercheval(2004), Merritt(2004) 등이 주장하듯이, 이론교육과 함께 대학생이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윤리적 딜레마를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범죄자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는 체험 학습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행정학과 교육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와 행정학과 교육의 정당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실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대학교에서의 공직윤리 교육과 함께, 의무론적 가치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이 공직윤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화 과정에서 의무론적 가치관(deontology)을 배양한 경우,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개인의 의무, 도덕성, 약속한 것을 지키기 등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가치관을 대학 교육 이전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배양하도록 도울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석 상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인해, 대응표본을 구하지 못해 교육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둘째, 공직진출자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 공직진출자의 공직윤리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공직윤리 강의라고 할지라도 강사의 역량과

15) 공직윤리 4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할 수 있었다. 한 강의의 경우, 몇 번의 비디오 시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었다.

강의방식, 특히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과의 혼용이나 체험 학습 여부에 따라 강의 간의 효과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강의계획서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여 이들 공직윤리 관련 강의 간의 차이점에 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윤리교육 내용과 강의 방식에 관해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 내용과 강의 방식 등이 분석에서 변수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영대학원 학생에 대한 선행연구와 같이 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일반대학원, 행정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이 보다 명확하게 측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의 발생으로 인한 응답 차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시기에 최대한 많은 응답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이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공직진출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교 고시원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인호·백형배·이계만. (2011). 행정윤리 교육 실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2): 239-253.
- 김광암. (2001). 미국의 부패방지법 연구 및 바람직한 부패방지법 제정 방향. 「저스티스」, 34(3). 한국법학원.
- 김상돈. (2019). 도덕과 교육은 어떤 도덕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윤리교육연구」, 55: 109-137.
- 김상돈·윤영돈. (2019). 도덕성 발달을 위한 윤리교육이론의 논쟁과 과제: 어떤 도덕성인가? 2019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1-23.
- 김우진. (2020). 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가치공동체 복원. 「동아인문학」, 50: 367-392.
- 김윤정. (2008). DIT를 사용한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보」, 8(3): 199-205.
- 김주환. (2001). 한국의 행정학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3): 1-16.
- 김진영·최희수. (2020). 하브루타 학습을 적용한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419-436.
- 김태길. (1995). 「한국윤리의재정립」,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문병상. (2011). 도덕민감성, 도덕동기, 도덕판단, 자아강도와 도덕행동의 관계. 「한국교육」, 38(1): 83-100.

- 문용린. (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서울: 집문당.
- 박경철. (2015).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박균열. (2006). 도덕판단력측정도구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와교육연구」, 23.
- 박치성. (2008).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 17(3): 3-32.
- 송병주·정원식. (2000). 행정학과 4년제 대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방향과 대안의 모색. 「한국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울: 한국행정학회.
- 송선영·신원동. (2019). 도덕성 발달에 관한 윤리교육이론 연구 동향과 과제: 완전성을 향하여. 「2019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5-40.
- 신은정·이주희. (2019). 부동산산업 윤리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11(2): 5-25.
- 아시아투데이 (2018.1.25).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자녀 직업 1위 공무원.
- 안전저널. (2018.12.7). '꿈의 직업' 1위는 공무원.
- 양소영·김남숙. (2020). 공무원 직업윤리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678-688.
- 윤기찬. (2004).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395-426.
- 이미애. (2013).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력 변화와 윤리교육 효과측정 방법. 「간호행정학회지」, 19(3): 351-360.
- 이성기. (2012). 미국의 뇌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3(2): 91-120.
- 이인재 외. (201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적용 연구: 도덕적 판단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혜·문용린. (2012). 대학생이 인식한 도덕역량의 개념과 수준. 「인간발달연구」, 19(3): 107-128.
- 최명민. (2009).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윤리적 민감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4): 381-402.
- 하미승 외. (2004).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길표 외. (2004).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허찬무 (2016). 캐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제도의 고찰.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01-1425.
- Albaum, G. & R. A. Peterson. (2006). Ethical Attitudes of Future Business Leaders: Do They Vary by Gender and Religiosity? *Business and Society*, 45: 300-321.
- Allmon, D. E., D. Page & R. Roberts. (2000). Determinants of Perceptions of Cheating: Eth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Demograp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3: 411-422.
- Beanmont, E. (1979). Training Revolu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Souther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4.

- Bebeau, M. J., J. R. Rest, & C. M. Yammor. (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al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 225-235.
- Bendixen, L. D., G. Schraw & M. E. Dunke. (1998). Epistemic Beliefs and Moral Reason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2): 187-200.
- Bommer, M., V. Gratt, J. Gravander & M. Tuttle. (1987). A Behavioral Model of Ethical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6: 265-280.
- Bore, M. (2003). Teaching Ethics: Can Ethics be Learned, and If So, What Chang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 100-114.
- Bowman, J. S., E. Berman & J. West. (2001). The Profes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 Ethics Edge in Introductory Textboo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2): 194-205.
- Breadmeier, B. J. L. & D. L. L. Shields. (1994). Applied ethics and moral reasoning on sport. pp.173-188. in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edited by J. R. Rest & D. Narvaez.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hen, Y. J. & T. L. P. Tang. (2006). Attitude toward and Propensity to Engage in Unethical Behavior: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Maj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9: 77-93.
- Clarkeburn, H. (2002). The Aim and Practice of Ethics Education in an Undergraduate Curriculum: Reasons for Choosing a Skills Approach.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6(4): 307-315.
- Cohen, J. R., L. W. Pant & D. J. Sharp. (2001).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Making Between Canadian Business Student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0(4): 319-336.
- Craft, J. L. (2013). A Review of the Empirical Ethical Decision-Making Literature: 2004-2011.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7(2): 221-259.
- Crittenden, V. L., R. C. Hanna & R. A. Peterson. (2009). Business Students' Attitudes Toward Unethical Behavior. *Marketing Letters*, 20: 1-14.
- DeConinck, J. B. & D. J. Good. (1989). Perceptual Differences of Sales Practitioners and Students concerning Ethical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8: 667-676.
- Duckett, L. J. & M. B. Ryden. (1994). Education for Ethical Nursing Practice. pp.51-70. in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edited by J. R. Rest & D. Narvaez.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rsoy, N. & Ü. N. Gündoğmus. (2003). A Study of The Ethical Sensitivity of Physicians in Turkey. *Nursing Ethics*, 10(5): 472-484.
- Evans, J. M., L. K. Trevino & G. R. Weaver. (2006). Who's in the Ethics Driver's Seat? Factors Influencing Ethics in the MBA Curriculum.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5(3): 294-305.
- Feiner, M. (2004). *The Feiner Points of Leadership*. New York: Warner Business Books.

- Ge, L. & S. Thomas. (2008).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Deliberative Reasoning of Canadian and Chinese Account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189-211.
- Giacalone, R. A. (2004). A Transcendent Business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3(4): 415-420.
- Giacalone, R. A., C. L. Jurkiewicz & S. B. Knouse. (2003). A Capstone Project in Business Ethics: Building an Ethics Training Program.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7(5): 590-607.
- Gibbs, J. C. (1991). Toward an Integration of Kohlberg's and Hoffman's Theories of Morality. *Human Development*, 34: 88-104.
- Grimes, P. W. (2004). Dishonesty in Academics and Business: A Cross-Culture Evaluation of Student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9: 273-290.
- Herington, C. & S. Weaven. (2008). Improving Consistency for DIT Results Using Cluster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0(3): 499-514.
- Hopkins, W. E., S. A. Hopkins & B. C. Mitchell. (2008). Ethical Consistency in Managerial Decisions. *Ethics & Behavior*, 18(1): 26-43.
- Hosmer, L. T. (1988). Adding Ethics to the Business Curriculum. *Business Horizons*: 9-15.
- Husted, B. W. & D. B. Allen. (2008). Toward a Model of Cross-Cultural Business Ethics: The Impa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the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293-305.
- Jurkiewicz, C. L., R. A. Giacalone & S. B. Knouse. (2004). Transforming Personal Experience into a Pedagogical Tool: Ethical Complai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3: 283-295.
- Kercheval, N. (2004, May 21). Full-Time MBA Students Required to Visit Federal Prisons and Interview White-Collar Criminals. Baltimore, MD: The Daily Record.
- Kohlberg, L. (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s in Years 10 to 1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ujala, J & T. Pietiläinen. (2007). Developing Moral Principles and Scenarios in the Light of Divers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 141-150.
- Kullberg, D. (1988). Business Ethics: Pace Provides Lessons From Real Life. *Managerial Review*, 54-55.
- Kurpis, L. V., M. S. Beqiri & J. G. Helgeson. (2008). The Effects of Commitment to Moral Self-Improvement and Religiosity on Ethics of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0: 447-463.
- Kurtines, W. M. & Gewirtz, J. L. 문용린 역. (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Langenderfer, H., & Rockness. (1989). Integrating Ethics into the Accounting Curriculum: Issues, Problems and Solution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4(1): 58-69.
- Leino-kilpi, H., Vülimäki, M., Dassen, T., Gasull, M., Lemonidou, C., Scott, P., Schopp, A., Arndt, M. & Kaljonen, A. (2003). Perception of Autonomy, Privacy and Informed Consent in the Care of Elderly People in Five European Countries: Comparison and implications for the

- future. *Nursing Ethics*, 10(1): 58-66.
- Lowenberg, M. F. & R. Dolgoff. (1996). *Ethical Decision for Social Work Practice*. Peacock Publishers Inc: Itasca.
- Marques, P. A. & J. Azevedo-Pereira. (2009). Ethical Ideology and Ethical Judgments in the Portuguese Accounting Profess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86(2): 227-242.
- McCabe, A. C., R. Ingram & M. C. Dato-on. (2006). The Business of Ethics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64: 101-116.
- Merritt J. (2004. October 18). Welcome to Ethics 101. *Business Week*, 90.
- Mintzberg, H. & J. Gosling. (2002). Educating Managers beyond Border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1: 64-76.
- Mohr, L. B. (1990). *Understanding Significance Testing*.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OECD (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guidelines and overview*, Paris: OECD.
- Pfeffer, J. & C. T. Fong. (2002). The End of Business Schools? Less Success than Meets the Eye.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1: 78-95.
- Pitt, L. E & R. Abratt. (1986). Corruption in Business - Are Management Attitudes Right? *Journal of Business Ethics*, 5: 39-44.
- Ponemon, L. (1992). Ethical Reasoning and Selection-Socialization in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39-258.
- Rabouin E. M. (1996). Walking the Talk: Transforming Law Students into Ethical Transactional Lawyers: Engendering Moral Sensitivity. *DePaul Business Law Journal* 1(Fall/Winter): 33-35.
- Reidenbach, R. E. & D. P. Robin. (1988). Some Initial Steps toward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Ethical Evaluations of Marketing Activit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7: 871-879.
- _____.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Scale for Improving Evaluation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 639-653.
- Rest, J. R.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 _____. (1983). "Morality" pp. 556-629.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Cognitive Development*. edited by P. H. Mussen. New York : Wiley.
- _____.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obertson, C. & P. A. Fadil. (1999). Ethical Decision Making in Multinational Organizations: A Culture-Based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4): 385-392.
- Roxas, M. L. & J. Y. Stoneback. (2004). The Importance of Gender Across Cultures in Ethical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 149-165.
- Rynes, S. L., C. Q. Trank, A. M. Lawson & R. Ilios. (2003). Behavioral Coursework in Business Education: Growing Evidence of a Legitimacy Crisi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and Education, 2(3): 269-283.
- Self, D. J. and D. C.. Baldwin Jr. (1994). Moral Reasoning in Medicine. pp.163-172. in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edited by J. R. Rest & D. Narvaez.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heeran, P. J. (1993).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 Philosophical Approach. Lond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inghapakdi, A., J. K. M. Marta, C. P. Rao & M. Cicic. (2001). Is Cross Cultural Similarity an Indicator of Similar Marketing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2: 55-68.
- Siu, N. Y. M., J. R. Dickinson & B. Y. Y. Lee. (2000). Ethical Evaluations of Business Activities and Personal Religiousness. Teaching Business Ethics, 4: 239-256.
- Staw, B. M., N. E. Bell & J. A. Clausen. (1986). The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Attitudes: A Lifetime Longitudinal Tes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56-77.
- Stead, W. E., D. L. Worrell & J. G. Stead. (1990). An Integrative Model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Ethical Behavior in Business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233-243.
- Swaidan, Z., M. Y. A. Rawwas & S. J. Vitell. (2008). Culture and Moral Ideologies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6(2): 127-137.
- Tang, T. & Y. Chen. (2008). Intelligence Vs. Wisdom: The Love of Money, Machiavellianism, and Unethical Behavior across College Major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1-26.
- Terpstra, D. E., E. J. Rozell & R. K. Robinson. (1993).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Ethical Decisions Related to Insider Trad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4): 375-390.
- Trank, C. Q. & S. L. Rynes. (2003). Who Moved Our Cheese? Reclaiming Professionalism in Business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2: 189-205.
- Vardi, Y. & Y. Wiener. (1996). Misbehavior in Organizations: A Motivational Framework, Organization Science, 7(2): 151-165.
- Vardi, Y. & E. Weitz. (2004). Misbehavior in Organizations. Lawrence Erlbaum, Mahwah, NY.
- Weaver, K. (2007). Ethical Sensitivity: State of Knowledge and Needs for Further Resaerch. Nursing Ethics, 14(2): 141-155.
- Weaver, K. J. Morse & C. Micham. (2008). Ethical sensitivity in Professional Practice :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5): 607-618.
- Whipple, T. W. & D. F. Swords. (1992). Business Ethics Judgment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 671-678.
- White, L. P. & M. J. Rhodeback. (1992). Ethical Dilemmas in Organization Development: A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 663.
- Wittmer, P. D. (2000). Ethical Sensitivity in Management Decision: Developing and Testing a

- Perceptual Measure Among Management and Professional Student Group. *Teaching Business Ethics*, 4: 181-205.
- Wynd, W. R. & J. Mager. (1989). The Business and Society Course: Does It Change Student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 487-491.
- Zgheib, P. W. (2005). Managerial Ethics: An Empirical Study of Business Students in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Journal of Business Ethics*, 61: 69-78.

진종순(陳鍾淳):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행태, 인사행정, 행정부패 등이다. 최근 발표한 논문과 저서로는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nd disaster response: Why did the Korea Coast Guard fail in its rescue mission during the Sewol Ferry Accident?”(2017), “The role of assessment centers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2016), 「공공조직론」(2017) 등이 있다(jongsoonj@mju.ac.kr).

〈논문접수일: 2021. 4. 12 / 심사개시일: 2021. 4. 13 / 심사완료일: 2021. 5. 2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thics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in, Jongsoon

The education of 'public ethic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universities presupposes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received at universities continues even after becoming a public official. If so, does the public ethics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ethical awareness? Also, are these students actually influenced after they become public servants? These are questions that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thics education in universities.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survey of students who took public ethics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univers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aking the course of public ethics did not br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students' ethical consciousness, but the average value of the P index actually increased by 0.34 from 42.84 to 43.18. In particular, respondents with deontolog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ethical consciousness.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ethics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how to cultivate deontology emphasizing fairness, individual obligations, morality, and keeping promises in the early socialization process.

Key Words: Public ethics, ethics, morality, university, education